통권 116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1. 6. 13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5월로 한마음, 통일로 한겨레

—5 · 18 광주민중항쟁 21주년 기념행사

'오월로 한마음, 통일로 한겨레' 의 기치로 열린
5 · 18광주민중항쟁 21주년 기념행사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19, 20일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5월 20일 금남로 도청앞 광장에서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성사를 위한 양민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전국대회' 가
미군의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고,
그후 청년학생 시민 등 4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5 · 18민중항쟁 21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 를
5 · 18행사준비위원,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 · 전남연합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회장님-2 / 출소장기수 류락진선생님을 찾아서 곽인석 편집위원-4 / 소위 '민혁당사건' 3차연행자 임태열 씨의 부인 박윤희님을 찾아서 안윤정 편집위원 - 7 / 남보현 회원을 찾아서 이창희 수습간사 - 8 / 산행기 송창학 회원-10 / 기행기 김혜순 옴시롱감시 통회원 - 11 / 감옥에 온 편지 99년 한총련 방북대표 황혜로남-13 / 감옥에 보내는 편지 이혜정 회원-14 / 감옥에 보내는 시 유병문 편집위원 -15 / 인권침해사례 '소위 단국대활동가조직사건 규탄 - 16 / 회원소식 및 광고-19 /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 / 회비납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6 · 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한다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은 6 · 15공동선언 위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남북공동선언 1돌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그 존립명분을 잃은 것과는 관계없이 더욱 시퍼렇게 날을 세워 6 · 15남북공동선언을 먹칠하는 악역을 쉬지않고 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국가보안법과 함께 곧바로 없어져야 했던 국정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폭압기구 또한 그들의 존재양식처럼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창출에 눈이 빨개져 있다.

끊임없이 애국청년학생들을 탄압해 오던 공안당국은 최근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자주대오' 사건을 만들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의 존치명분을 살리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통일운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던 각 대학마다 존재한다는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사건' 의 되풀이면서 6 · 15공동선언에 정면 도전하는 수구적 냉전논리의 행패이다.

지난 5월4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단국대 재학생과 졸업생 12명에 대해 집과 사무실, 군 근무처 등에서 압수수색과 함께 '활동가 조직'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이 가운데 구본승(법학93, 졸업생, 현 민주동문회 간사), 황우정(공대94, 2000년 총학생회 연사국장, 부여군 농민회간사), 정찬무(법학96, 2001년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정인철(공대97, 2001년 총학생회 연사국장, 군입대준비), 장선옥(경영정보98, 야간학생회 부학생회장) 학생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산라(2001년 총학생회장, 서남총련 의장), 박요섭(2000년 총학생회장), 서우석(대학원생, 휴학) 학생 집을 압수수색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으며, 군복무중인 김명섭(법대97), 손지승(공대97) 학생도 같은 혐의로 군 기무사에서 연행 조사 받고 있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도 미란다원칙을 무시당한 채 불법 강제 연행되었고, 밤샘조사와 자백강요 등 부당한 강압수사를 받았으며, 가족과 변호사조차 면회를 제한받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강윤경(응물95, 졸업생), 강덕영(법학94) 등은 체포영장 없이 불법 강제 연행되었다가 15일 풀려났으며 황우정의 경우 부여군 농민회 사무실 문을 부수고 불법 침입해 농민회 소유 컴퓨터 등 기물을 불법으로 압류해 가는 등 농민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총련 죽이기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활동가 조직사건' 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9기 한총련 출범식을 앞두고 학생을 상대로 이적단체 조작사건을 터트려 학생운동을 먹칠하고 한총련의 이적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7일 경기대 총학생회장이며 서부총련 의장인 이경민 학생을 잡아 가둔 행패나 공안검찰에서 각 대학별로 한총련 대의원 탈퇴서를 강요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같은 한총련과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데는 반통일 · 반민주 ·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6 · 15남북공동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 보기로 한다.

한총련 죽이기 일환으로 자행되는 '활동가 조직사건'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수단의 잔재이면서, 반공과 반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해왔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이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47명의 국회의원이 민중탄압과 정치적 악용,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능성 때문에 폐기 동의안을 냈을 정도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사는 바로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족적 양심세력(자주통일세력), 사회진보세력에 대한 잔혹한 탄압사이면서 자주민주통일운동사

이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사법살인 당했으며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권안보와 분단고착화에 악용된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정의)한 2조와 그러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과 관계를 갖고 그들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3~10조까지의 처벌규정들이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효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 대표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처벌규정에서도 독소조항으로 악명이 높았던 7조, 10조에 대해서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시절에도 삭제론이 나올 정도였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에 반대하고 전면적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조를 완화하여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키고 7조의 찬양·고무죄 일부 항목과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의 허구성 때문이었다.

바로 '정부를 참칭 하거나' 를 뺐다해서 이북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키는 효력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처벌규정들이 모두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짜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7조를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독소 항목인 7조 3항을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 6월31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29명의 양심수 가운데 96%인 677명이 7조 위반이고 그 가운데 92% 이상이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였다는 데서도 개정안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가 넘게 이어온 남과 북 사이의 반목·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자주와 통일시대를 여는 통일장전이다.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들은 민족통일에서 자주의 원칙과 통일방식에서 연합-연방제의 공통성을 지향하기로 했다.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는 데는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찬양고무는 말할 것도 없고 잠입·탈출, 편의제공·금품수수,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념·사상·체제·제도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이뤄야 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 관행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특히 오늘 동북아에서 조성되고 있는 미·일의 침략책동과 긴장고조, 군비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조건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민족적 대단결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양심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면서 반인권 악법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4월 28일 현재 1,592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고, 그 가운데 84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 청년학생 817명의 양심수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6월1~3일까지 9기 한총련 출범식이 있었다. 9기 한총련은 이미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사법당국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구실로 삼았던 연방제통일(사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연방제 통일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을 6·15 남북공동선언의 통일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를 위장전술이라고 망발하고 있지만 조국사랑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충정을 읽을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

범민련, 한총련의 이적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갇혀 있는 119명의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쫓기고 있는 정치수배학생들에게 수배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당국에서 6·15공동선언을 말로만 이행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허구성과 기만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갓을 벗은 조선선비는 신들메를 꾸리고

곽인석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류락진선생님(민가협양심수후원회원들과 함께)

5월이면 저마다 배어 나오는 애린 향기가 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기운은 우리네 한에 순결함을 더해주고 있다. 정녕 올해 또다시 피어나는 진달래는 목이 터져라 핀 핏빛이런가?

5월 통일역사기행 -- 월간「말」지가 주최하여 통일인사, 단체를 방문하는 통일 역사 기행단의 방문지가 해마다 5월이면 광주로 정해지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다.

밤늦게 출발하여 새벽에 광주에 도착하니 젊은 통일 일꾼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젯밤부터 잠을 설치며 기다리셨다는 류락진선생님이 기세문선생님과 함께 거기 계셨다. 옛 선비와도 같은 정갈함과 꿋꿋함을 간직해 오신 선생님의 모습이 한없이 반갑고 살갑게 느껴져 온다.

이슬 머금은 새벽, 무등산을 오르시는 백발의 선생님은 숨이 차면서도 젊은 일꾼들에게 통일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당신의 열정을 토해내셨다.

류락진선생님은 1928년 8월 26일, 전북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에서 출생하셨다.

조부모님과 부모님께서는 5남매 중 장손으로 태어나신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이 복스러운 장남이 훗날 부모님의 안정된 삶의 희구를 저버리고 조국의 통일 전선에 뛰어들어 한평생 몸이 쇠진하기까지 형자의 길을 걸어갈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하였으랴!

5세 때 부친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어 8년제 소학교를 마치고 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반이던 1946년까지 일본에서 청소년시절을 지냈다. 사회주의에 심취되신 선생님은 20세 되던 1947년 입당하여 1950년 6.25전쟁당시에는 노동당 전북남원군당 선전부에서 일하셨다.

추석 때 기습적으로 감행되었던 맥아더의 인천상륙으로 순창의 회문산으로 입산하셨다. 생사를 몇 번씩 넘게되는 빨치산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때를 회상하노라면 유격대와 지구당 활동 등을 통해 순수한 신념으로 뭉쳐진 조국애에 젊음을 몽땅 불태우던 시절이었다고 하신다.

1952년 3월 남원 지리산에서 체포되어 광주수용소에 수감되셨다. 당시 특무대가 관할하는 군사재판소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변절자의 내부고발로 빨치산활동중 책임자(장)급에 해당되는 121명이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거기 끼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이련가. 6·25전쟁 때 비상사태하 특별조치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 법의 위반으로 적용되어 1953년 민간재판소로 이관되었으며 여기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957년 10월 3일 출소하시기까지 감옥에서 겪으신 형상을 어찌 필설로 담아낼 수 있으랴. 가슴으로 뜨겁게 싸안은 동지애와 그 동지들의 죽음이 선생님의 심장 속에 점점이 맺혔던 것을…

31세 때인 1958년 1월 동지적 관계였던 처녀 신애덕님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고난의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운명적 삶이 맺어진 것이다.

1960년경부터 새로이 조직이 정비되어 지하활동이 시작되었다. 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혁신정당의 조직사업에 관여하였던 것이 발각되어 수배생활

을 하던 중 광주로 이주하시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곳에서의 삶을 영위하시고 계신 연유이다. 건축현장의 목수일을 하며 노동자로서의 실천적 삶과 사상적 이론을 접목시키며 부단한 학습을 교양시키던 시기였다고 하신다.

체험을 통하다보니 개인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가 있어 조직생활이 절대 필요하며 조직 속에서 성장하며 일해야 한다고 역설하신다.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일꾼들의 타성과 학습태만을 통렬히 질타하신다.

1964년 체포되어 4개월의 구금 끝에 집행유예로 출소하셨다. 그 뒤 선생님은 지방사립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셨는데 1966년 방학을 이용하여 월북하셨단다.

"민족 고유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진짜 조선 땅이로구나" 하고 북부 조국 땅에서의 첫인상을 말씀하신다. 선생님의 가슴에 무언가 밀려옴을 느끼셨단다.

마치 오랜 외국생활 끝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의 느낌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도 하시며…

그후 꾸준히 사업에 헌신하시던 중 1971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호남 통혁당 재건사건(중앙정보부 발표)으로 다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되셨다. 지금 이곳이웃에서 동지적 삶을 함께 하고 계시는 기세문선생님 등 10명의 동지들이 함께 연루되었었다. 4.19혁명이후 최대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해방투쟁이었다고 평가되는 통혁당 사건의 중심에 선생님이 서 계셨던 것이다.

2심에서 무기로 감형되신 후 43세에 세 번째의 감옥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자행된 전향공작반의 악랄한 테러공작은 인간과 하등동물의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죽음의 굿판이었다. 선생님은 당신의 몸도 추스리기 힘드셨지만 그보다는 동지들이 처절한 투쟁 끝에 하나 둘 스러져 가던 그 순결한 최후를 지켜보는 것은 살을 저며내는 또 다른 고문이었다 한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름중 한 동지를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신다.

강진이 고향인 김규호 동지.

일본 교토 대학출신으로 탁월한 이론가이며 출중한 인품을 지녀 동지들 가운데도 신망이 드높으신 분이셨다고 한다. 당시 다른 동지들이 전향거부에 따른 모진 고문으로 옥사하거나 혈압상승등 그 후유증으로 처절한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자 76년 6월 28일 자결로서 사상적 순결을 지키셨다고 한다. 고문으로 인한 체력한계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스스로 결론짓고 53년부터 시작된 모질고 험했던 옥중 삶을 장렬하고도 고귀하게 스스로 불사르신 것이다. 하늘의 명을 깨달은 50대 중년으로….

선생님의 고통 또한 참혹하여 한때는 사모님과 함께 감옥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딸 둘, 아들 둘 네 자녀를 남편대신 도맡아 키웠던 아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렇잖아 도가뜩이나 빨갱이 아들, 딸이라고 온갖 따돌림과 멸시를 당하던 아이들이었는데… 가슴저린 얘기가 있다.

작은딸이 중학교 1학년 때 빨갱이 딸이라고 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자 담임선생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다른 학교에 전학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란다. 그러자 이때부터 어린 여학생은 새벽에 일찍 등교하여 변소청소와 오후 교실청소를 도맡아 하면서 이를 극복해 냈다고 한다니 그 인내력이란…

가히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약간의 도움의 손길로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음을 아신 선생님은 피눈물로 숱한 밤을 새우셨다 한다. 작년 가을 북으로 가신 신인영선생님과 손잡고 한없이, 한없이 우시며…

과거 운동권에 몸담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준엄히 설파하신다. 현재 개별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중심고리를 하나로 묶는 생활로 복귀하라고. 또한 운동가들이 현장 투신하는 경우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자기혁신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1990년 2월, 20년만의 출소이후에도 그 혁명적 삶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파란 만장한 현대사들로 점철되어 살아 움직여 갔다. 철저한 사상학습과 부단한 자기 성찰로 후배동지들을 일깨우며 다시 현장에 뛰어들어 변혁적 조직을 꾸리신 것이다.

선생님은 1992년, 흔들림없는 당신의 길을 가기위해 구국전위사업에 참여하시게 된다. 이로 인해 1994년 다시 검거되셨으며 네 번째로 영어의 몸이 되셨을 때는 67세의 노인이셨다. 1947년 약관 20세때부터 시작된 투쟁의 역사는 소박하고도 평범했던 한 개인에게 노구의 몸을 이끌고

서라도 감옥살이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8.15일, 72세의 연세로 출소하셨다. 통합 30년의 감옥생활을 뒤로하고 출소하였지만 언제 또 이어질지 모른다. 모질고 잔인하며 끈질긴 끈이여!

그 달 28일에 가평 두밀리 수련원에서 펼쳐진 민가협 수련회에서 먼저 나오신 여러 장기수 선생님들과 감격적인 포옹을 하시고 끈끈한 동지애를 다지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민족민주통일진영의 대동단결을 역설하시며 비장한 결의를 다지시던 선생님께 이 민족과 역사는 무어라고 응답할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분단고착화의 현안들과 수구세력들이 아직도 온존해 있으며 반민족적 군상들은 여전히 거들먹거리고 있지 않은가?

지금 신새벽의 무등산 공기는 해방과 통일의 날이 선연히 다가옴을 살갗에 전해준다. 심금을 울리는 대화 속에서 살같이 빠르던 시간의 아쉬움 또한 얼마나 간절하던가.

마지막으로 현 정세에 대한 대처방법과 운동세력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다.

작년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받아 안았지만 사변적 변화에 대한 고조된 분위기에 도취되어 통일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신다.

우리들의 역량의 한계를 염두에 두신 것이리라. 금년에는 미리 준비해 들어가는 만큼 대동 단결하여 통일로 성큼 다가가는 큰 성과를 기대 하신 단다.

또한 우리 일꾼들이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고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꾸려야 하는데 현재의 모습에서는 그 점이 불확실하다며 안타까워하신다. 일꾼들에게 자유주의는 배격 척결해야 할 대상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발호하고 있다.

진보와 통속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자문하시듯 말머리를 돌리신다. 한 두 사람의 대표할만한 간부의 빈자리를 바로바로 채워낼 후비가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도 염려스러워 하신다.

"곧 변화된 정세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질 높은 간부를 요구할 것이라며 할 일, 갖추어야 할 과업은 산더미 같은데 맨주먹으로 뛰고들 있으니…" 라며 고개를 떨구신다.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은 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속해있으면서 진보운동에 한발을 담고있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 운동가들은 올바른 조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체험부족으로 인한 비판적 자기개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다. 조직으로 들어가 자기 나름의 성찰로 인한 과오를 검증 받으며 사상의 철저한 습득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하신다.

그렇게 될 때만이 현 정세하의 운동에서 분파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언어, 행동을 철저히 배격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망월동으로 향했다. 뇌성으로도 진동 칠 수 없는 작은 봉우리들이 그때처럼 함께 어우러져 있다. 꽃잎처럼 스러져간 영혼들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다. 선생님의 침묵은 차라리 억만년의 바위를 깨신다.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안에서 시민군들을 이끌고 있던 열혈 청년이 동족의 군인이 쏜 총탄에 쓰러진 적이 있지 않은가. 몇 달 전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공학도로서 복학준비를 하고 있던 이 땅의 청년류영선.

선생님의 막내 동생은 스물 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먼저 가버린 것이다.

물론 그때 선생님은 감옥에 계셨으니…. 그로부터 10년 후에 출소하신 것이다. 또 큰딸까지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니… 아, 선생님 가족은 변혁시대를 운명으로 안고 살아갈 것이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었단 말인가.

망월동을 돌아 나오시는 선생님을 오월햇살은 뜨겁게 뜨겁게 내리 쬐이고 있었다.

조선선비는 피멍든 가슴을 무엇으로 쓸어 내리는가. 핏물대신 검은 먹물 찍어내어 흰 화선지에 꾹꾹 눌러쓰신 조국통일의 네 글자는 차라리 선생님의 가슴을 눌러 쓰신 것이리라.

선생님의 서도는 이미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여 예향인 광주에서 작가로서 활동하시며 그 명성이 자자하시다. 그러나 그 흔한 서예전 한번 열지 않으신다.

"선생님 부디 통일기념대서예전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쇠약해 가시는 몸을 생각하여 그만 고개만 수그리고 말았다.

차창 밖에서 인자하신 할아버지 모습으로 손을 흔드시는 백발의 선생님을 누가 혁명가라고 속을 수 있겠는지…

나는 상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안윤정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박윤희님(임태열어머님과 함께)

정오, 아직 햇살이 그렇게 따가울 시간은 아니건만…

6월8일 12시 이수역 태평백화점 앞.

서로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전화를 통해 잡은 약속시간과 장소였다.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라는 말만 전해들은 고로 필자는 열심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줌마들을 살피고 있었다.

저 사람일까, 아님 저 사람일까.

"저, 혹시 임태열씨 부인이세요?"

"아니요."

백화점을 앞을 방황하며 찾았지만 도무지 누군지 알 길이 없었다. 기어이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전화기를 통해 숨가쁜 박윤희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미안해요. 지금 이수역에 도착했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린 만나게 되었다. "많이 기다리셨죠? 미안해요, 애 데리고 남편 면회 갈 채비까지 해 가지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요즘 매일 면회를 다니고 있어요. 애기 데리구. 그래서 1심 끝날 때까진 다른 일은 안하기로 하고 있지요. 남편은 지난 3월6일 안기부에 연행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난 91년부터계속 수배된 상태로 10년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95년 결혼 후에도 제대로 안정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선 어쩜 지금이 더 편한 건지도 모르지요. 이미 잡혔으니 적어도 잡혀갈 걱정은 없잖아요." 윤희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임태열씨는 91년부터 수배상태이다가 행불자로 처리되어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로 살았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공개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작은 학원에서 강사 정도의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살다가 집 근처에 좀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야밤에라도 당장 보따리를 싸서 움직여야하는 그런 늘 불안한 상황에서 살았다. 하루 벌어 그날그날 연명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루 하루 살기도 어려웠어요. 결혼 후엔 한 번도 떨어져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상황에 대해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힘들었던 남편에게 '민혁당' 이라니 당치도않은 말입니다. 결혼 후 남편의 도피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한 번도 안정되게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딸 지원(5)이가 태어난 후엔 애가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도 못갔죠.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다보니 아이는 지금껏 변변한 또래 친구조차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애들만 보며 같이 놀고 싶어 야단이랍니다. 어쨌든 별 탈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이가 고마울뿐입니다."

윤희씨는 최근 남편의 심경을 전하기 위해 보내온 편지들을 가지고 왔다. 거기엔 구구절절히 부인과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얼마 전 결혼 기념일엔 평소엔 쓰지도 않던 시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남편이 보내온 사랑의 시를 자랑스레 보여주는 윤희씨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어렸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면 우린 그저 소박하게 살거예요. 노동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숨쉬며 그렇게 살거예요. 그게 저의 꿈이었고 또, 남편의 꿈인 민중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길인 거 같아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하는 윤희씨의 어조엔 힘이 실려 있었다. 윤희씨가 오랜 세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면서도, 지금은 남편을 감옥에 두고 매일 면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밝고 씩씩할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한 믿음과 낙관이 아닐까.

다섯살바기 지원이에게 빠이빠이를 하며 윤희씨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내내 임태열씨의 편지에서 본 글귀가 머리 속을 맴돌았다.

"나는 상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주의' 란 말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나의 사고의 중심엔 언제나 민중이 있다. 민중이 이 사회에서 행복하다면 운동은 왜 하나? 겉보기에 명백히 불행한 민중에 대한 깊은 공감, 겉은 번지르르해도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민중의 진모습을 볼 줄 아는 진정한 여유와 통찰력, 그리고 또한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 정말로 깊은 공감, 그들의 고통에 대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짙은 공감과 참된 인간애야 말로 운동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하루라도 그들의 농성에 참여하려 했어요."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소식 수습간사

요즈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활동이 부쩍 활기를 띄고 있다. 이유는 열성적인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는 신입회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국가보안법철폐의 목소리가 드높아지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을 자기 구호로 하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대해 지지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새내기 회원 남보현님.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서 일남삼녀 중 셋째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34세의 평범한 여성, 남보현 회원은 올해 초 문득 인터넷을 보다가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외치며 혹한과 눈보라속에서 농성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 농성단을 보고 "오래전에 조계사에서 정치수배자들과 양심수군문제 해결모임의 농성에도 몇 번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도 그들에 대한 미안함, 도와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다시 정치수배자들이 아주 힘들게 농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루라도 그들의 농성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찾았어요"라는 마음에 그들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에 누구보다도 열심이다.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 농성단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책임지기위해 PC방 가서 작업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녀의 힘으로 명동성당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에 동의하며 서명해준 시민들의 연명이 매일 몇 백명씩 청와대, 집권여당, 야당 등 각종 인터넷게시판에 올려지고 있는 것이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 학원강사 생활 등 많이 바쁘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바쁜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괜히 바쁜 척하는 것 같아 대답하기 미안하죠."

하지만, 사실 책도 읽고 싶고, 사색의 시간도 갖고 싶은데 정치수배해제 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 일로 그런 시간을 갖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 자신의 여가 대부분을 양심수후원회 활동에 쏟는 이유를 "어려서부터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자주 분노하고, 심지어는 '이런 세상이 정말 싫다'는 염세적인 고민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권력과 부를 지닌 소수에 의해 짓밟히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을 응당히 역사의 주인으로 위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민중이 주인됨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중을 위하는 양심수들을 석방하고자 열심히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하는것이다.

남 회원이 민중을 위한다는 이른바 '운동'을 접한 것은 대학시절부터이며,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민가협의 모범따라 안산에서 매주 목요일 국가보안법철폐집회를 하는 안산민주청년회이다.

"한림대학 2학년때 자연대 학생회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고, 1998년 동네에 있는 안산민주청년회의 '민주'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 청년회활동을 2년정도 했어요. 대학시절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회활동을 했기에 나에게 깊이있는 삶의 교훈이 없었어요. 또, 학교보다는 사회로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대중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찾고 싶었고 그러다가 청년회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취미활동 정도로 여긴 청년회의 실

제 활동모습에 놀랐어요.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신선한 자극을 받았죠. 하지만, 학생회 때도, 청년회 때도 소수의 권위적인 모습과 지나친 논쟁 등으로 사람관계에 안좋은 분열들이 발생하는 것에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청년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까닭은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지녔고, 민중에 대한 삶을 알면서 어떤 틀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대중의 삶에 들어가 문학활동을 하고 싶었기에 학생회 활동도, 청년회 활동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듯이 문학지망생의 꿈이 있어서이다.

외삼촌이 출판사를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집에 책이 많았고, 어릴적부터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긴 문학에 대한 지향에, 크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태백산맥〉 등을 읽고 자연스레 민중에 대한 고민이 접해진 것이다.

"나는 문학이 민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문학은 사람의 삶을 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함으로써 대중의 글을 쓰고 싶어요. 나의 삶과 활동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하고 싶어요."

이 아마추어 문학 작가지망생은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싫어하는 '글' 을 쓰는 것에 대해 "저는 마음이 동할 때 글을 써요. 글을 쓰게 되면 내 자신이 정화되요. 내가 지난날 쓴 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쓰는 글을 보면서 힘찬 다짐을 하게 되요. 그리고 글을 쓰면 논리도 정연해지고, 표현도 깔끔해지면서 내 자신이 깨끗해짐을 느껴요" 라고 이야기한다. 글쓰는 것이 정말 좋은가보다.

최근 읽었던 것 중에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으로 〈전태일 평전〉을, 인상깊은 어귀로는 〈체게바라 평전〉에 나오는 "리얼리스티가 되자, 하지만 마음 속에 불가능한 꿈을 지니자" 를 꼽는다. 요즈음 신자유주의아래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삶을 보면서, 일상에서 조금씩 해이해져가는 나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 다시 한번 〈전태일 평전〉을 보았는 데 매우 감명깊었다고 말한다.

회원의 '풋풋한 꿈이 있고, 너무 바른' 대답에 필자는 갑자기 이런 질문들이 하고 싶어졌다.

"요즈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전보다는 많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아직도 내 자신이 부족해서인지 행복을 많이 느끼진 못해요."

"구태한 질문이지만, 여지껏 살아온 가운데 가장 기쁜 적과 가장 슬펐던 적을 꼽는다면?"

"가장 슬펐다라기보다 일상에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장면을 볼 때 늘 슬퍼요. 책을 볼 때도 제국주의자들이 원주민을 무참히 살해하는 장면을 볼 때 큰 슬픔을 느껴요. 기쁨도 내 자신이 남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화합을 일구어내는 것을 볼 때 많이 생겨요."

"심심풀이 질문,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풉니까?"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많이 생기는 데, 예전에는 참고 지내다가 요즈음에는 관계가 복잡해진 사람들과 직접 토론등을 풀고자 해요."

몇 번의 질문과 계속되는 '너무나 모범적인' 답안속에서 필자는 남보현 회원이 지향하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추구보다, 남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고자하는 사람' , 즉 바른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자신을 진정한 '사람' 으로 가꾸려는 회원이 있기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진실된 힘이 있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게 된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 양심수후원회를 직접 접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함께 하는 회원들이 헌신적이며 성실하며 참 좋다고 하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라는 조직이 다양한 수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같아 좋고, 그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시각도 넓어지고 배울 점도 많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점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신입회원으로 여러 회원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당차게 "천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하는 진정한 대중조직,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실천에 나서고 있는 회원들의 힘과 지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같아요." 라고 말했다.

필자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남보현 회원과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뿌듯했다.

은은한 아카시아향내를 맡으며 오르는 산길

송창학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

나는 개인적으로 5월 산행이 기다려졌다. 왜냐면, 싱그러운 녹음속에 은은한 아카시아향내를 맡으며 오르는 산길은 역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후원회 산행코스 중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 조금 늦잠을 자도 여유가 있다는 이유가 컸기 때문이다.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약속 장소인 낙성대역으로 갔지만, 오늘도 역시,(행사 때마다 매번 느끼는 부끄러움이지만) 먼저 오셔서 젊은이들을 기다리시는 이종린 의장님, 장기수 선생님, 민가협 어머님들..항상 말없는 실천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그 뜻을 따르며 배우는 젊은이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본다.

여느 때보다 빠른 출발을 두고 누군가 한 마디 한다. "회장님이 안계시니까 조금 이상하지?" … 모두들 표현은 안했지만, 병원에 누워계신 회장님이 얼마나 산행에 오고싶어 하실 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분위기를 눈치채신 병도 아버님의 "이번만 후원회 산행에 오고 다신 안올꺼야" 하시는 농담에 모두들 좀전의 기분은 훌훌 털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즐겁게 산행을 시작하였다.

이 정도시간이면 정상까지 가볼까? 모두들 한마디씩 하는데 여러 가지 일으로 몸과 마음이 무거운 우리 수습간사는 회장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새로운(?)제안을 한다. 더 이상 가지말고 "이 정도 쯤에서 식사를 먼저 합시다".

어머님들의 푸짐한 반찬에 맛있는 점심이 끝나자 2탄이 나온다. "시간도 넉넉한데 우리 건강을 위해 20분만 잘까요?" 결국 낮잠시간은 1시간이나 이어졌다.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오수를 즐긴 사람들은 모두들 개운한 기분으로 자기소개를 하였고 지난달 산행에서 있은 미국의 MD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시사모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역사적인 배경이 간단히 소개되고 현정권 아래 자행되는 노동정책과 그 극복책으로 나온 통일의 필요성 등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공유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산하여 회장님이 입원해 계신 사당의원으로 향하였다. 무리한 일정에서 오는 피로의 누적과 급성폐렴으로 인해 수척해 보이시긴 했지만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맞아 주셨다. 정밀검사를 위해 당분간 입원해 계셔야 하는 회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뒷풀이는 흑맥주 한 잔으로 시작하였는데. 우리 수습간사의 자화자찬 왈, "회장님 대신 갈팡질팡 산행을 이끌었지만 그래도 빼먹고 안한 일정은 하나도 없어요."

자연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환희

김혜순 옴시롱감시롱 회원

이번 기행은 4월 30일 북한에서 유명을 달리한 이종환 선생님을 추모하는 슬픈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회원들은 모두의 기억 속에 애틋하게 담긴 선생님과의 추억을 하나씩 들춰내며 울고 또 울었다. 선생님께서 올곧게 당신의 신념을 지켜오신 이야기며, 한없이 다정하셨던 모습, 끝까지 노동을 통해 당신을 단련하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많이 아쉬워했다. 그러나 신념의 고향에 가셔서 짧으나마 시간을 보내시다 가셨으니 다행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한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은 위로가 된 듯 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기행을 다녀온 지 한달 여가 지났다. 기행을 마치고 올라오던 차안에서 기행문 쓸 것을 강요(?)당했으니 청탁을 받은 지도 한 달이 흐른 셈이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권 선생님은 이 선생에게, 이창희 간사는 나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태생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니가 써라, 아니다 네가 써야 한다' 며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 이 선생이 수학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처음엔 권 선생님의 부탁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이 선생이 쓰고 내가 조금 덧붙이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6일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자판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허니 좋은 글이 나오길 기대마시라?

이번 기행의 압권은 숙박지인 구가암이었다. 구가암은 조선 후기 안동.봉화 지역의 양반들이 휴식을 취하고 풍류를 읊기 위해 지었던, 지금으로 치면 별장인 셈이다. 숲속의 습기를 피하기 위해선 지 흙을 쌓아올려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세운 집은 겨우 전깃불만 있을 뿐 문명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 외딴 섬이었다. 봉화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30여분을 달려 구가암 오르는 길에 도착한 우리는 달빛을 벗삼아 아이들과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혹 이번 기행을 가지 못한 사람은 92년 3월 임실군 강진면 큰길가에서 내려 섬진강을 따라 김용택 시인의 고향인 장산리로 걸어들어가던 그때를 기억하면 되리라.

구가암 천장엔 부엉이가 집을 짓고 사는데 불을 끄면 부엉이의 큰 눈만이 잠들지 못한 아이들을 내려다볼 것이라는 무서운 전설을 들으며 10여 분을 넘게 오르니 어두컴컴함 속에 구가암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 평소 쓰지 않던 집이라 쓸고 닦으며 불을 지펴 방을 데우니 11시가 다 되었다. 큰방은 불을 지폈으나 방이 넓어선지 쉬 따뜻해지지 않았지만 벽과 천장을 온통 붓글씨를 연습한 신문지로 바른 운치 있는 작은 방은 금세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장작불을 지피며 얘기꽃을 피우던 아낙네들은 강의도 마다하고 속내를 나누었는데 그만 새벽녘에는 그 방에 계신 선생님들을 뒤주 속에 갖혀 타죽은 사도세자 꼴로 만들 뻔했다.

화장실은 큰 고무통을 땅 깊이 묻고 그 위에 판자만 걸쳐놓고 벽도 나무로 3면만을 막아놓았는데 통풍이 잘 돼서인지 냄새가 전혀 없었다. 다만 아이들은 빠질세라 무서워했고 여성들은 꼭 짝을 데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가암 왼쪽 편에 있는 우물 또한 깊진 않지만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다고 하는데 30여 명이 넘는 우리가 먹고 씻어도 금세 다시 차오르곤 했다. 주변에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세균의 번식을 막는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샘 주변에는 이런 이유로 늘 향나무로 심었다고 하니 자연을 헤치지 않으며 자연과 벗하며 사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발빠른 선생님들과 몇몇 회원들은 새벽녘에 구가암 뒷산에 오르며 산의 정기를 마셨다는데 밤새워 술마신 친구들은 이튿날의 기행도 별로 즐겁지 못한 듯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구가암을 내려오며 여기저기 짓밟혀진 마당의 풀과 샘가의 풍경들을 보면서 다음엔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연의 품안에 푹 안겨 속삭이다가 갈 만큼의 사람

만 와야겠구나 생각했다.

어제 서울에서 내려올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겁들을 먹어서인지 아침 일정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기행을 추진할 땐 울진의 소광리 소나무 숲을 볼 생각이었는데 날씨가 건조한데다가 며칠 전 울진에서의 산불로 출입을 통제해 차선책으로 택한 게 통고산 자연 휴양림이었으나 상경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숙소에서 좀 더 가까운 청옥산 자연 휴양림으로 답사지가 변경됐다.

봉화 지역에서 산지킴이로 활동도 하시고 나무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신 김석윤 선생님의 안내로 청옥산 곳곳의 나무들을 관찰했다. 목재가 될 만한 나무들은 일제가 강탈해 갔고 6.25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 때 너나없이 실어내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힘이 없으면 우리의 자연까지도 무참하게 학살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가지가 뻗어나가는 단계의 수에 따라 대충의 수령을 세는 방법이며, 나이테를 보면서 나이테가 고르지 않고 넓이 등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보아 나무가 자랄 때의 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거였다.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푸른 물이 된다 하여 물푸레나무라 이름지었다는 나무 이름에 얽힌 얘기들, 잎이 크고 넓어 예전에는 떡 받침으로도 사용했다는 떡갈나무며 나무가 무르고 연해 그릇이나 바둑판, 조각 등에 사용되며 피로 끈이나 바를 만드는 데 쓴다는 피나무 이야기 등, 나무의 쓰임새며 생장 조건 등 많은 사실들을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나무를 심을 때 너무 간격을 넓게 심으면 경쟁 상대가 없어 나무의 키가 크지 못해 촘촘히 심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뤄야만 제대로 성장한다는 얘길 들으며 인간사나 자연의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나뭇잎들 사이로 쏟아져 오는 가슴 벅찬 햇살은 자연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환희, 그 자체였다.

어디를 가나 좋은 산이 있으면 그 안에 버금가는 절이 있다는 게 여러 번의 기행을 통해 얻게 된 사실이다. 역사를 배우던 시절부터 입이 닳도록 외웠던 우리 나라 최초의 목조건물인 극락전이 있는 봉정사가 첫 번째 답사지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 들른 곳도 여기였다 하니 절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한다. 보편적으로 절 입구에까지 상가나 기념품점이 차지하고 있는데 봉정사는 큰 절인데도 숨겨진 절처럼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미치지 않아 그 자체로도 느낌이 좋았다.

이튿날 들른 영주 부석사는 주불전인 무량수전 서쪽에 큰

청옥산 자연휴양림에서

바위가 있는데 위아래의 바위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다 하여 부석사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절 입구의 당간지주부터 무량수전 앞의 석등이며 삼층석탑, 조사당과 벽화 등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잘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오르는 길 주변이 많이 파헤쳐져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절의 운치를 느끼기에는 어딘가 아쉬움이 많았다.

안동의 의성 김씨 고택의 정갈함과 유물 전시관에 보관된 각종 생활 용구와 고서들, 임금이 내린 교지, 목판들을 보면서 양반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차안에서 바라본 퇴계 종택의 쓸쓸한 불빛은 안주인을 맞지 못한 오늘날의 세태를 실감하게끔 했다. 그밖의 답사지인 도산서원과 검제종가, 법흥동 전탑. 고성 이씨 종택.임청각.군자정, 오천민속마을 등 안동 지역의 고택들과 양반문화의 흔적들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출발한 날 용인.이천의 식구들이 이천의 중부 휴게소에서 거의 4시간을 버스를 기다리며 무료하게 보냈으니 답사지를 다 본다는 것은 무리였으리라.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이 제천에서의 쌈밥과 깊은 맛이 우러나는 장아찌들이 잘 어울린 점심 식사의 흡족함 때문이었고, 저녁 식사 때 봉화의 숯불갈비도 시골 토종돼지의 맛 그대로여서 먹는 것으로 답사지를 다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 않았나 한다. 자연에서 얻은 것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밥상에 올려놓는 그 독특한 맛이 우리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정태 선배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나게 놀아주어서 어린이날 절반이 넘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주지 못한 죄책감을 그나마 씻을 수 있었다.

정태 선배 정말 고마워요!!!

옴시롱감시롱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하는, 1년에 서너 번씩 재미있는 역사기행을 자체로 하는 기행소모임(으뜸일꾼 : 노혁 019-323-0598)입니다.

선택이란 참 얄궂습니다.

이혜정님께

대학 때 집에서 통학을 했었습니다. 길게는 2시간30분이 걸릴 때도 있었지요.

자취다 하숙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동안 짧게는 1시간30분, 길게는 2시간30분이 걸리는 길을 매일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득이하게 집에 못 들어오시는 날도 계셨지만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경우였습니다.

어느 돈 잘 버는 사장이 돈 보는 법에 대해 쓴 글을 봤습니다. 직장과 집은 가까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지 말고 자기 개발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 아버지는 돈 버는 길을 택했다기보다 가족과 함께 있기를 택하신 겁니다. 선택이란 참 얄궂습니다. 돈 버는 것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제 아버지가 돈을 벌지 못할 각오를 해 가며 가족과 함께 있기를 결단하신 건 물론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매일같이 3~5시간을 전철이나 버스에서 보내오실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은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 원칙을 스스로 세워 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었을까요?

살다 보면 선택하기에는 얄궂은 선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 것'과 '아닌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등의 단순한 비교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에서야 말로 삶의 철학과 원칙이 베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국과 매국이라는 가벼울 수 없는 주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죠. 매국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걷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러나 애국이라는 원칙의 칼날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어느덧 내가 매국의 길 편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따라 무척 덥습니다. 요 며칠 새 부쩍 더워졌습니다. 한 여름도 남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도 담요가 버거울 정도는 아닙니다.

양심수 후원회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5.18이고 광주에서 행사가 많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창 바쁘실 땐데 광주에서 지내는 덕에 접견도 하고 소식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 금새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나를 돌아보고 다그치게 됩니다.

머지 않아 당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01. 5. 20 황혜로

황혜로님은 1999년 10차 범민족대회때 한총련대표로 방북하고, 돌아온 뒤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금 광주교도소에 22번으로 수감중입니다.

한총련과 맺은 인연이 벌써 8년이 되었네요.

황혜로님께

일년 동안 내릴 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온다고 하던데…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려서인지, 아니면 이번 여름에 큰장마가 지려는지…

TV에서 연일 방송되는 가뭄 걱정에 하루하루 비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사실 전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한답니다. 괜시리 날씨에 따라 기분이 우울해지는 게 싫어서죠. 징역을 살 때, 비라도 오는 날이면 그 축축한 느낌을 선두로 운동도 못 하고, 빨래도 마르지 않던 것을 몸이 먼저 거부하던 것이 습관이 됐나 봐요!!)

요즘도 냉수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이 시기가 한 여름보다 더 더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름 징역을 생각하면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뒤로 땀이 주루루 흐르던 기억, 가장 더운 한 주를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어 일주일 동안 학습도 안 하고 고우영의 만화삼국지를 읽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있는 한여름 수의를 입은 제 모습은 땡볕에서 운동장을 뛰던 모습입니다. 누군가,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고 운동해서 땀을 충분히 내면 그 해 겨울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 더위보다 겨울 추위가 더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그 당시 전 독거 중이었습니다.

지난 5.18 광주 순례 때 황혜로 대표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이 죄송했습니다.

어찌 생각치 못했을까요?

광주에 황혜로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요…

편지 받고서야 깨닫고 나서 또 다시 새삼하지 못한 제 모습을 반성했답니다.

한총련 출범식 얘기는 들으셨나요?

한양대 친구들은 참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동지들입니다. 함께 모인 동지들의 숫자가 많아져 진정 힘찬 출범식을 치뤄 낸 2박3일 일정 동안, 예년과는 다르게 제 몸이 쉬 지치는 것을 느끼고 문득 나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총련과 맺은 인연이 벌써 8년이 되었네요.. 후후 ^^;;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제 인생의 약 1/3을 차지해 버렸으니 그리 짧은 세월만은 아닙니다.

전 여전히 부천 새날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그 적은 것들이 모여 비약적으로 제 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합니다.

사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이들을 다루는 공부방 교사로서의 능력이라기보다 공부방 교사라면 갖춰야 할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마음만 앞서 가면 안 되겠지만 마음이 동을 뜨면 (?) 지혜는 발현될 수밖에 없음을 하루하루 깨닫고 배웁니다. 재미있고 신명나지요..

요즘 제 시계는 참을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 황혜로 대표 시계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역시 저와 같길 바랍니다.

건투!!!!

6.15 정상회담이 벌써 1년이라네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내야 하는 해.

6월 8일 역곡벌에서 이혜정

이혜정님은 지난 1995년 범민족대회때 한총련대표로 방북하여 돌아와 징역을 산 뒤, 지금은 못다한 학업을 하는 대학생으로 공부방 활동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강철은 녹슬지라도

– 대전교도소 하영옥 형에게 –

유병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1.
대지로부터 태어난 두 생명이 있었네
강철과 나무가 그들의 이름이었네
대지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 또한 대지를 사랑했네

어둠의 시절,
강철이 먼저 빛났네
세상의 모진 매질에도 굳세게 견디었네
그런 강철을 사람들은 좋아했네
강철의 이름은 나날이 세상에 회자되었네

나무는 강철에게 얘기했네
"우리는 대지로부터 나서 대지를 위해 살 뿐이야"
"우리의 이름보다 대지를 먼저 생각해야해"

강철은 웃었네
"염려말게 친구, 나도 잘 안다네"

강철은 나아갔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기 위해
자꾸만 나아갔네
대지를 떠나 더 먼 곳으로 나아갔네
어느덧 그의 눈에 대지는 보이지 않았네
대신 하늘의 별과 달이 그 자리를 차지했네

나무는 다시 강철에게 얘기했네
"다시 대지로 돌아와. 그 길은 틀린 길이야"
"대지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죽어"
친구의 마지막 애정으로 얘기했네

강철은 비웃었네
"이제 희망은 대지에 있지 않아"
"대지에는 볼품없는 삶만 넘쳐날 뿐이야"
"저 빛나는 별들을 봐.
위대한 것은 저 우주 속에 있단 말이야"

2.
나무는 고민했네
자신이 태어난 대지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대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애정도 깊어지고
덩달아 대지에 내린 뿌리도 깊어졌네

어느날엔가
세상을 휩쓴 큰 홍수가 있었고
곧 이어 모든 것이 말라죽는 가뭄이 닥쳐왔네

"그 봐 강철이 맞잖아"하면서
대지를 떠나갔네
사람들 하나 둘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났네

열흘이 지나고 스무날이 흘렀을 때
지친 발걸음을 끌고 떠났던 사람,
하나 둘 되돌아왔네

그 외로운 시간들,
나무는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지켰네
홍수와 가뭄 속에
비록 가지가 부러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대지에 내린 뿌리를 거두지 않았네

더위와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은
나무에 기대 쉬었네
그때마다 나무는 말없이 넉넉한 그늘을 내주었네

3.
흐르는 세월은
모든 것의 진실을 얘기한다고 했던가

강철은 녹슬지라도
대지에 뿌리내린 나무는 언제나 푸르다고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라 칭하는 조직사건 조작음모와 관련한 구국단국 총학생회 규탄성명서

5월 14일(월) 오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현재의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가지고, 수명의 집을 압수 수색한 이후, 수명의 학생을 연행하였다.

집에 있던 동문 구본승(법학 93, 졸업생), 강덕영(법학94, 97년 부총학생회장), 정찬무(법학96, 총학생회 집행부), 강윤경(응물95, 졸업생)학생을 강제로 연행하였으며,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우정(공대94, 2000년 총학생회 연사국장, 졸업생)동문은 연행된 것으로 보이나 소재지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손지승(공대97, 군복무중), 김명섭(법학97, 99년 법대학생회장)학우는 군복무중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학생회 활동을 했던 일을 가지고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이산라(법학 94, 2000년 서남총련의장 총학생회장), 박요섭(경제97, 2000년 총학생회장), 서우석(분생93, 졸업생)학우의 집에는 압수수색을 하였다. 황우정 동문의 경우 단국대학교와 14년째 농활을 수행하고 있는 부여군 농민회의 간사로 일을 하면서 애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강윤경 동문 또한, 방송위원회 노조의 간사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구국단국 총학생회는 서울시경 보안수사대가 구시대에나 있었던 조직조작사건을 만들어서 겨레의 통일지향을 거스르려고 하는 반역사적, 반통일적인 책동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조직의 명칭은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조직의 체계도와 문서를 들이밀며 연행한 사람 모두를 조직의 체계안에 엮어 넣으려는 것이다. 즉,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이라는 죄명을 들씌우고 있는 데, 이것은 사실무근의 조직을 저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는 요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안당국이라 하면 어떠한 기관이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행각은 온겨레가 한결같이 통일을 외치며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수작이고, 온 국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연행된 학우들과 선배님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륜이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님과의 면회조차 허락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명시된 밤샘조사를 강행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기에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반인권적인 작태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사건을 접한 일만 단국학우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국회에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유지존속하여 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반통일적인 책동이다.

지금 현재 검경당국의 판단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은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진행한 노동자들, 남북농민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농민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국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과 전국민적인 여론조사결과도 90%이상이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어진 법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최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앙심을 품고,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시도하면서 겨레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거스르려고 하는 책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반통일세력들은 그러하였다.

72년, 91년 남북간에 역사적인 합의를 하였지만, 그 때마다 반통일세력들은 긴급조치발동, 조직조작 사건 등으로 통일을 바라는 7000만 겨레의 통일의지를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는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이며,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며,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를 개척하려는 겨레의 큰 물줄기는 결코 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권과 검경당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것이 겨레의 통일지향을 막아나서려는 책동의 시작이라면, 당장 지금의 조직사건의 음모를 걷어치워라!

칠천만 겨레는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물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 이상의 연행을 꿈꾼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마지막 발악일 것이며, 연행한 학우들과 동문들을 지금 당장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공안당국의 이같은 처사에 우리는 큰 분노를 느끼며, 그들이 하는 작태를 용서하지 않고 가감없는 투쟁으로 연행된 학우들을 조속히 석방시켜내는 투쟁과 함께 반시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조직사건 조작음모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조직사건 조작음모 중단하고 연행한 학우들을 즉각 석방하라!
반시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구국단국 33대 자주적 총학생회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 조작사건경위

(2001년 5월 14일~현재)

5월 14일 **오전 10시경부터** 서울 시경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법대 구본승(93, 졸업생, 현민주동문회 간사), 강덕영(94, 97년 부총학생회장, 현재 군 제대후 공부중), 정찬무(96, 현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김명섭 (97, 2000년 총학생회 문화국장, 현 군복무중)동문과 공대 황우정(94, 현 부여군 농민회 연사부장), 정인철 (97, 현 총학생회 연사국장), 이과대 강윤경(95, 현 민주노총 언론노련 산하 방송위원회 노조 간사), 야간강좌 장선옥 (98, 현 야간강좌 학생회 부회장) 학우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연행.

같은 시간부터 군 복무중인 법대 김명섭(97)에 대한 압수수색과 군당국에 의한 조사, 공대 손지승(97) 역시 군 당국에 의해 조사

서울 시경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이과대 강윤경 동문을 제외한 연행자 전원의 집과 법대 이산라(94, 2001년 서남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상대 박요섭(97, 2000년 총학생회장), 이과대 서우석(93, 대학원 휴학중) 집에 대해 압수수색 진행. 이산라, 박요섭, 서우석은 체포영장 발부상태, 연행된 동문과 학생들은 홍제동 대공분실, 군 당국에서 조사 작업 진행.

연행 동문들의 소식을 접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연행자들의 소재를 파악한 이후 변호사와 부모님들의 접견을 시도하였으나 변호사 접견만 허용되고 부모님들의 접견이 불허되어 홍제동 대공 분실 앞에서 50여명의 철야농성 진행.

5월 15일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민주동문회를 비롯한 제 사회 단체들과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1시 명동성당에서 공동대책위 차원의 1차 기자회견진행

단국대학교 학내에서는 15일부터 규탄집회 진행과 학내홍보활동과 철야농성 진행중

5월 15일 저녁과 16일 새벽에 강윤경, 강덕영 불구속으로 풀려남.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구본승, 황우정, 정찬무, 정인철, 장선옥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서초동 지방법원 형사 318호에서 진행되어 위 5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5월 16일 연행자 5인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밤에는 남대문 경찰서와 서대문 경찰서로 나누어 이송됨.
- 남대문 경찰서: 황우정, 구본승
- 서대문 경찰서: 정찬무, 정인철, 장선옥

김명섭은 현재 군 복무 중에 압수수색을 받고, 장지동 기무사에서 구속상태로 조사 중

5월 17일 현재 서대문 소재 경찰청 보안 4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면회 불허, 부모님의 면회도 하루에 한 번이지만, 보안 4과장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군 복무중 몇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김명섭(법대 97), 손지승(공대 97) 학우가 기무대에 의해 서울로 이송. 구속 조치됨.

5월 18일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2차 기자회견

5월 23일 구속자 5인(구본승, 황우정, 정찬무, 정인철, 장선옥) 서울 구치소로 이송.

5월 24일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 연대집회" 이후 청와대에 항의서한, 탄원서 접수

5월 24일 구속 조사중인 장선옥 학우에 대한 가택압수수색 재실시.

현재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20여개, 20여개, 지지 · 규탄 성명서 발표 단체 33개 단체. 신문광고 참가 단체 20여개 단체.

현재 검찰 조사 진행중.

연행자 명단

- 구본승(법학 93, 졸업생) - 현재 민주동문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음.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 황우정(공대94, 2000년 총학생회 연사국장, 졸업생) 현재 부여군 농민회에서 간사로 활동중.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 정찬무(법학96, 2001년 총학생회 집행부) - 현재 총학생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중.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 정인철(공대97, 2001년 총학생회) - 현재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군 입대 준비중.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 장선옥(경영정보98) - 현재야간학생회 부학생회장.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 김명섭법학97, 99년 법대학생회장) - 군복무 중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재 서울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됨. 구속상태. 헌병대에 수감중
- 손지승(공대97) - 군복무 중에 구속됨. 현재헌병대에 수감중
- 강덕영(법학94, 97년 부총학생회장) - 군복무 이후에 사법고시를 준비중이며, 현재는 불구속 수사상태.
- 강윤경(응물95, 졸업생) - 현재 방송위원회노동조합의 간사로 활동중이며, 현재는 불구속 수사상태.

불법 · 인권 피해 사례

-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동 대공분실에서는 밤샘조사를 강행
- 법률에 정해진 구금장소로 피의자를 이송시키지 않고, 홍제동 대공분실에 구금.
- 장선옥 학생에 대한 협박과 강제에 의한 강압수사와 서울시경에서 조작해 놓은 자료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장을 찍게 함.
- 황우정 동문이 일하고 있는 부여군 농민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중 기물파손.
- 17일 현재 서울시경 중앙경찰청 보안4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면회 불허, 부모님의 면회도 하루에 한 번이지만, 보안4과장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장기수 선생님들 소식

- 5월 13일, '우리탕제원' 이 관악구 봉천11동 1656-12 3층(888-6321: 전화번호는 그대로임)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정태, 노혁 회원이 애써 주셨습니다. 예전 자리에서 그리 멀지않고, 낙성대 만남의 집과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거의 맞은 편 정도의 위치와 거리에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정순덕 선생님 건강** 모금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나간 뒤 지금까지 약 5백만원이 걷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간병비 모금에 여러분의 소중한 힘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모금계좌
  권오헌 국민은행 008-01-0579-881

- 남파공작원으로 22년 옥고를 치른 뒤, 낙원동 이문학회에서 한학을 가르치시는 노촌 이구영 선생님의 일생을 그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경남대 심지연교수가 쓴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소나무)에서 우리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 묻은 선생님의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 선생님의 삶을 다룬 '산정에 배를 매고'가 절판되어 새롭게 글을 다듬어 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생님 모두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선생님' 이신 이구영 선생님의 삶을 꼭 읽도록 합시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 고 문익환 목사님의 큰아드님으로 오페라 연출가이며 전 예술의전당 예술감독이었고 "한국음악연구소"를 차려 민족극, 민족음악 발전에 힘써 왔던 **문호근 선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가협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을 연출했고 민족가극 '금강' '백두산' 등 공연과 오페라 윤이상씨의 '심정' 등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19일 '민족예술인 고 문호근 선생 민족예술인장' 으로 장례예배, 마로니에공원노제를 지내고 선영이 있는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 안장되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 이득행,양계숙 회원 서울 본동 천주교성당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지 그리고 많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과 출소선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알립니다

지난 달
낙성대 만남의 집에 마련된
'회원모임방(888-4470)' 에
여러 분을 초대합니다.

각종 소모임 및 회의 등을
마음껏 열어도 됩니다.
소중한 모임공간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의 발길이
필요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1년 5월

01 민주노총, 대학로에서 세계노동절 111돌 기념대회-노동자, 학생, 시민 등 3만 여명이모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생파탄 등 규탄 대학로-종로-시청 앞까지 행진. 시청 앞에서 정리집회 마침. 민가협회원과 후원회원 깃발 들고 함께 함.

금강산에서 남측의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측의 직업총동맹 등 남북노동자들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열고 자주와 민족, 대단결 결의.

연합뉴스 기자로부터 지난해 북녘으로 가신 이종환 선생님께서 4.30일 타계하셨음을 통보받음.

02 고 이종환 선생님 돌아가심에 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불교장기수후원회,천주교장기수후원회와 통일광장 함께 애도 광고 냄, 비전향장기수후원회는 별도로 애도 광고, 통일광장사무실에 고인의 빈소 차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단(박정기, 남상하, 권오헌)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우정)방문,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에 대한 전면적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 제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80년 강제해직언론인과 '동아자유언론실현선언' 관련자 18명 등 10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03 민가협 375회 목요집회, 여는 말을 보안관찰법의 폐해와 문제점으로 임기란 상임의장, 사례발표를 '보안관찰법은 이렇게 우리 일가족을 감시하고 괴롭혔다' 김순자님, '대법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한다' 이영기 대경연합 집행위원장님, '보안관찰법 24조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 안학섭 비전향장기수선생님 등이 해주시고 풍물공연을 서울산업대 풍물패가 함.

김교영 선생님 방문, 선생님 말씀 듣다 (곽인석 편집위원 후원회소식 취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이 주최한 학술시민포럼에서 장명봉(국민대)교수는 6·15공동선언 실천 위해서는 헌법(영토조항),국가보안법 개폐 불가피 강조

NMD, TMD 저지와 평화 실천 공동대책위원회는 미대사관 부근에서 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미사일방어 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임.

유엔인권위 본부(제노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투표에서 미국은 1947년 이후 50여 년만에 인권위이사국 자격에서 탈락

문동환 목사 팔순기념예배가 사직동 수도교회에서 있었습니다.-축하드립니다.

04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농, 민자통, 통일광장선생님들, 청년단체대표들 청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문재룡 선생님 마중 다녀옴. 후원회 권오헌, 이창희간사 함께 함.

05 옴시롱감시롱은 29차 정기 문화기행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나무' 란 주제로 경북안동 봉화 영주 지역을 5~6일까지 2일간 모두 36명이 함께 하여 봉정사, 의성 김씨종택, 청옥산, 자연휴양림 부석사 등을 답사하여 재미있고 뜻있는 기행을 다녀왔다고 함. 이 기행에는 안학섭 선생님 내외분, 양희철 선생님, 이경구 선생님 사모님이 함께 하셨고 '나무에 대하여' 김석윤님의 강의가 있었음.

07 7대종단원로와 학술·교육·법조·정치·외교·언론·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120여명으로 구성된 평화포럼은 부시행정부에 MD추진이 한반도 평화 구축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며 MD반대, 북·미 제네바 합의서 준수 북·미 정상회담 등을 촉구

08 통일역사기행팀과 양심수후원회원들, 통일부가 광화문우체국 6층에서 정례적으로 상영하고 있는 '이북영화' 보기에 함께 함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고난의 행군' 영화감상에는 출소선생님들도 함께 하셨음. 함께 한 선생님들과 어버이날 기념도 겸함.

정부는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부분 35개 항목 수정요구안을 일본대사를 불러 전달

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4·13총선 때 낙천, 낙선 운동을 펴온 충북 총선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김진국 서원대교수에게 선거법위반협의를 인정 벌금 3백 만원 선고

09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준비위원회 및 91년 5월 열사기념사업회 결성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가짐. 이어 5월 대투쟁 10주년 기념 토론회 '91년 5월을 말한다' 진행-저녁에는 91년 5월 열사 10주기 추모와 5월 대투쟁 기념 문화제를 열었음.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SOFA개정국민행동 등 사회단체 미사일방어계획 등 논의하러 오는 아미타지 미 국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인천공

항에서 벌임, 이들 사회단체는 아미타지 숙소인 하얏트호텔 후문에서 밤샘 시위도 함.

10 민가협 376회 목요집회, 여는말을 '한총련 이적규정, 무엇이 문제인가'로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사례발표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한총련 이적규정' 정형기(97년 연세 원주교정 총학생회장, 99년 5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뒤 7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다시 구속되어 2001년 4월 만기출소함), '이적단체 근거가 없어도 이적단체 구성원, 배민균 구속' 조완수(건국대), '한총련 대의원은 인권도 없다, 한총련 탈퇴 종용 사례모음' 주진환(동국대) 등이 함. 퍼포먼스로 '안녕, 국가보안법'을 중앙대 예술대 학생들이 함.

-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주관으로 탑골공원에서 '5·16쿠데타 친일파 독재원흉 박정희 청산 주간' 선포식
- 'NMD. T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대위' 회원들이 하얏트호텔 정문 앞에서 미국무부장관 아미타지 차량에 달걀을 던지며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11 종묘공원에서 그림마당, 점령군 전시 기획단, 실천연대주관으로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후원으로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고발전 "점령군" 전시회'가 열림

- 양심수후원회 제13차 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림-사업·재정보고 회원사업 재정사업과 관련된 토론-회원활동공간으로서의 '만남의 집' 이용문제 논의, 민가협 장터, 회원산행, 기타 연대사업관련 협의함.
-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경상대 장상환, 정진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복직결정원심확정

12 종묘공원에서 서총련학생들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결의대회를 갖고 저녁 경희대에서 서총련 출범식을 함.

- 용산 미8군 정문 앞에서 NMD·TMD 저지 및 평화 실현 공대위 회원들 MD반대규탄집회
- 국가보안법폐지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집회-명동성당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민가협어머님들, 범민련 선생님들 함께 함

13 양심수후원회 회원활동의 시사 모임반 첫모임으로 '양심수후원회의 걸어온 길' 주제로 권오헌 회장님의 첫강의-송창학.변의숙,이승미,남보현,주경임,이동헌,서미영,김현희,김현애,곽인석,이창희,한수정,이정태,노혁 회원 함께 함.

14 '미국의 6·15공동선언 방해책동 및 대북 강경정책 철회와 양민학살 진상규명 사죄배상을 위한 범청학련 반미구국단식단' 농성장에 격려 방문하다. 이 구국단식단은 4.17-5.18까지 각대학별로 단식투쟁을 하고 중앙에서는 윤기진 대표가 홍익대에서 하고 있음-대표단 명동성당에서 농성

- 경찰청 보안수사대-단국대 재학생, 졸업생 등 12명에 대해 이른바 활동가조직 등 혐의로 불법강제연행. 구본승(법학과93) 강덕영(법학94) 정찬무(법학96) 강윤경(95) 정인렬(공대97) 황우정(공대94) 손지승(공대97) 김명섭(법학97)씨 등을 연행하고 이산라(법학94 2001총학생회장 서남총련의장) 박요섭(경제97,2000년 총학생회장) 서우석(분자생물학93) 집등 압수수색
- 권오헌(양심수 후원회장) 정연오(한학협회장) 단국대총학생회 방문 단국대생등 연행과 압수수색 등 사실확인과 학생들과 대책논의

15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른바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음모 규탄기자회견 공동대책위 주최를 갖다. 기자회견 마치고 임기란, 권오헌, 이천재, 정연오 대표들 경찰청 방문 사건조작 즉각 중단과 연행학생 석방을 촉구하고 가족면회촉구

- 후원회소식 115호 발송작업-사무실에서 조경래, 모지희, 김재명, 이창희, 김숙희 회원 애씀.
- 한양대 학생회관 조교식당에서 통일염원 원로실천단 결성식(단장 신창균님)을 갖고 전국연합 범민련 등이 주관하는 제2회 민족민주 스승의날 행사.

16 민혁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4년 6월선고를 받고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말"지 기자 김경환님 면회. 건강은 좋아 보였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 이루어진 일 축하드린다며 이두균. 이경구 선생님 가실 때 뵙지 못한 점 아쉽다 말했음. 또한 이옥순 선생님 타계에 슬픔과 명복을 빈다고 했음, 이어 경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님 면회, 밖에서 애써 주시는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 후원회원

들게 감사한다며 명동성당농성단 진재영 등 수배동지들에 안부전해 달라 했음. 오늘 두 사람 면회는 모두 특별면회를 했고 이정태, 김재명 회원이 함께 했음.

-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립 예정지에서 5·16군사쿠데타 40돌 맞아 규탄대회와 기념관 건립 반대 결의대회 가짐.
- '후원회소식' 발송(국내978통, 국제17통)

17
- 민가협 377회 목요집회여는 말, 임기란 상임의장님, 사례발표 '아미티지 방한 반대 시위대에 대한 인권침해' 박준형(범민련 간사), '명동성당 노숙 단식농성단 사례' 26일째 단식 중인 신정호 학생 호소, '김종일씨 구속사례' 자통협 박용선 사무처장, '단국대 학생 6명 구속사례' 구본승(단국대 민주동문회 간사), 이산라(01년 총학생회장 서남총련 의장) 부모님 등이 함.
-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단국대 학생 연행과 가족면회거절과 관련 민가협회원들과 단국대학부모들 경찰청 항의 방문, 서대문에서 갇혀 있는 정찬무, 장선옥, 정인철 면회 이어 남대문서에 가서 구본승 아버지와 이산화 아버지 권오헌, 구본승, 황우정 면회
- 국가보안법폐지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농성단 명동성당농성 1돌을 맞아 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 구로청년회 범민련남측본부 등 명동성당 앞 거리캠페인 서명 받고 함께 모여 농성1년 평가회를 가짐 송창학, 주경임, 이창희, 곽인석, 변의숙, 이승미, 이정태, 조경래, 김민정, 남보현, 황금수, 권오헌 함께 함
- 5·18광주민중항쟁 21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도청앞에서 시민,학생 2만여명이 모여 '5월로 한마음' '통일로 한겨레' 대동한마당 열림.

18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서총련들이 공동주최로 '미국의 내정간섭 대북 강경 책동 중단과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죄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대사관에 항의서 전달
-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의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단국대생 불법 연행 강압수사 등과 관련 경찰청장 등 고소 고발장을 서울 지검에 접수시킴
-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5·18광주민중항쟁 진압과정에서 7공수특전단 소속 A(44세)가 80년 5월21일 광주시 남구 남저수지 부근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 암매장한 사실을 양심 선언했다고 발표

19
- 명동성당에서 소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조작음모 서남총련 규탄집회-권오헌 규탄연설.
- 명동성당에서 '6·15남북공동선언방해 MD구축 광주학살 진짜 주범 미국 반대 국민대회'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 주최로 열림.

20
- 광주교도소에 복역중인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라창순 선생님과 한총련대표로 평양축전에 다녀와 구속된 황혜로학생 그리고 2000년 남총련의장 변재훈학생을 서울에서 내려간 양심수후원회 이승미 남보현 권오헌과 광주·전남 양심수후원회 이윤정공동대표와 류락진 선생님이 함께 면회함.
- 양심수후원회원들 범민련 후원회팀과 함께 5·18 망월동 열사묘역 참배
- 광주시 금남로 도청앞 광장에서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성사를 위한 양민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전국대회'가 미군의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림. 이종린 본부장 대회사 모의전범재판 검사장 램시 플라크와 공동 집행위원장 브라이던 베커 연설(정기열 목사 통역) 피해자 각 지역 대표 사례발표 등
- 도청앞 금남로에서 청년학생 시민 등 4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5·18 민중항쟁 21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를 5·18행사준비위원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주관으로 진행 오종렬, 단병호, 최승환(한총련 9기의장) 등 정치연설 이어 거리 행진

21
- 서울대 대동제기간 양심수를 위한 민가협 서울대장터가 열렸음(5.21-25) 장터기간중 양심수후원회 김지영, 모성룡, 이정태 운영위원과 이창희, 김재성, 송창학, 주경임, 이승미, 조경래 등 격려 방문과 일손으로 민가협어머님들을 도와드림

22
-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연대 제3차 대표자 회의, 7대 종단과 민화협과 민족공동행사 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함께 하기로 결의 종단과 민화협 대표와 공동행사 추진기

구 협의 통일연대 대표로 한상렬, 천영세, 권오헌 대표 선임

23 ✿ 범민련 대표로 북경 민족 대토론 회의와 평양축전에 다녀와 국가보안법위반협의로 구속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서원철씨가 범민련, 전국연합과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가 준비한 환영을 받으며 만기 출소함.

✿ 7대 종단과 민화협은 수운회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출범식' 을 가짐

24 ✿ 10·26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는 김씨의 행동이 수십년간의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씨의 명예 회복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발표.

✿ 서울대 학생회관앞에서 사회를 2001년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이 보는 가운데 378회 목요집회, 여는 말씀을 임기란 상임의장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철폐 민가협 장터' 로 하시고, 사례발표로 '한총련 수배자가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 낭송' 김현곤(99년 사범대 학생회장), '내 아들이 당한 국정원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합니다' 권성희(민혁당 하영옥씨 어머님), '인권대통령 시대에도 우리 아들은 양심수로 갇혀있습니다' 민혁당 임태열씨 어머님, '한총련 이적규정 부당하다' 김준철(2000년 공대 회장, 수배 중), '구태의연한 조직사건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산라(200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 서남총련 의장) 등이 함.

25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순덕 선생님 문병. 한겨레 신문 김정수 기자도 함께 했고 이강일 원장님 찾아 뵙고 감사 인사 드림. 이정태 운영위원 함께 하다.

✿ 권오헌 회장님 급성폐렴으로 사당의원에 입원하심.(6월 5일 퇴원).

26 ✿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토요캠페인' 을 "단국대 조직사건 음모 규탄" 의 주제로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농성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단국대 민주동문회와 함께 진행함.

27 ✿ 관악산으로 산행을 감. 이종린의장님, 류종인선생님, 유기진 선생님, 조순덕 어머님, 이귀임 어머님, 정병도 부모님과 김재선, 신현익, 이정태, 송창학, 이승미, 김창희, 김광석, 이창희, 한수정, 정형근 회원 등이 함께 함. 사당으로 내려와서 권오헌 회장님 병문안을 감.

29 ✿ 말지 4권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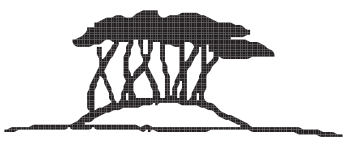
31 ✿ 민가협 목요집회, 여는 말씀으로 '날로 포악해지는 권력자들, 늘어가는 노동양심수' 라는 주제로 임기란 상임의장이 하시고 사례보고로 '구속노동자 숫자가 말하는 노동현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철저함을 고발한다' 강태봉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쟁의국장), '왜 우리가 밥그릇 두들기며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혁재 (건설운송노조 유진지회 수원 부분회장) 등이 함.

✿ 총회보고서 465부를 발송함.

✿ 출소장기수선생님과 양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6월 산행

6월 초여름 시원한 나무그늘아래서 맛있는 점심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가뭄에 너무 속상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산행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았으며 합니다.



- 언 제 : 2001년 6월 17일 오전 10시
- 어디서 : 수락산
- 만나는 곳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매표소
- 갖출 것 : 도시락, 회비 3000원
- 오는 편 :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오세요!